여백의 미

저희는 이번 주에 참석한 목회자 수련회에서 **통독의 삶**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통독의 삶은 성경을 90일만에 성경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일 한 시간씩 듣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름은 Bible GPS (바이블 GPS)입니다. GPS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네비게이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줘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도 따라가기만 하면 성경 1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략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 설명 10분, 그리고 40-50분 동안 10장 정도의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듣고만 있으면 매일 10장 정도의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새벽기도회 때 틀어놓고 1시간 가량 듣고만 있어도 좋고,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짬짬히 시간을 내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이 출근할 때 들으면서 출근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잠시 멈췄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듣고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만 들으면 그날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GPS를 구상하신 분은 정희승 사모님이신데,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 분이신지 강의를 듣는내내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강의를 인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의 중간 중간에 사모님이 들려주시는 예화와 간증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여백의 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강의를 인도해보면, 1시간을 온전히 채우는 것보다 50분 강의를 하고, 나머지 10분은 일찍 끝내주는 것이 듣는 청중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여백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와닿던지요.

그러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무엇인가로 꽉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보다는 내가 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 칼럼 코너에 많은 글들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간을 빽빽이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듬성듬성 공간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6.10.25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이방백성들도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방신께 드리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 신에게서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대가**성 제사였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였습니다.

구역모임

1.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까?

2.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우는 번제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번제를 통해서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3. 이번 주 내가 드려야 하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